

Green Tree International Magazine

본 매거진은 국제푸른나무의 정기간행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착한 소통지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세계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Green Tree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relief NGO that helps
the world's disabled people and children.

Vol.6

평양장애인척추재활원
건설이야기를 듣다

네팔 패션을 꿈 꾸다!

네팔후원의밤, 그 따뜻한 스토리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제 1차 통일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심화과정





국제푸른나무는
통일부 인가 NGO법인으로
등록된 국제 구호단체입니다.
세계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으며,
또한 북녘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함으로
남북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국제푸른나무는 한민족의
미래를 디아스포라들과 힘을
합하여 만들어가며,
청년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자원인 청년 인재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힘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힘을 합하여

우리의 소망인
뉴코리아를 준비한다.

홈페이지
greentreekorea.org
greentreeint.org

페이스북
facebook.com/greentreekorea

카카오ID
greentreekorea

후원 문의 및 신청
T. 02-3482-2000

후원계좌
760737-04-007453 국민은행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해외후원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Account No. 760768-11-
003910 (GREENTREE)
SWIFT Code. CZNBRSE
Add. 9th FL, Sewoo Bldg. 10,
Yeouido-dong, Yeondeung-
po-gu, Seoul, Korea
desk@greentreekorea.org

CONTENTS

인사의 말

곽수광 이사장

김준 사무총장

MAIN NEWS

평양 장애인 척추 재활원

네팔 후원의 밤+패션스쿨

제 1차 통일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심화과정

인터뷰

선한목자교회 | 후원자 (이은미 김도훈)

법인소식

지역본부 소식

사업본부 소식

나눔참여안내

2017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 가족들과 후원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샬롬’

유난히도 추웠던 긴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는 이 즈음 한반도에는 평창올림픽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틈새로 새어 나오는 평화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합니다. 이 작은 평화와 화해의 촛불이 햇불이 되고 거대한 불길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쉽게 흘러갈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긴박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제 푸른나무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역자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다양한 국적의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역의 루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윤교수가 세우고 있는 평양 어린이 재활병원건축도 힘을 다해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까지 섬겨야 할 귀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기에 비록 저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적 후원과 시간과 재능의 헌신이 이 시대의 작은 기적을 이루어 낼줄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살짝 열린 이 평화의 기회를 우리나라와 여러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살려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따뜻한 봄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원회
네팔 패션스쿨 돕기

네팔, 패션

주최 17년 12월 1일 금요일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한반도가 대단히 多事多難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고, 한반도 땅에 수많은 시대적 대풍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변모해 가고 있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덧 국제푸른나무가 2018년 8살이 되었습니다.

푸른나무가 자라서 중목이 되어가고 네팔에는 국제푸른나무 지부설립과 함께 지진피해지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인 [네팔푸른나무패션아카데미]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는 보건지소가 15개가 세워져서 빈민지역 보건을 위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로 길이가 680키로나 되는 팡갈란 운하에는 [Greentree]긴급의료수송선이 떠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마다가스카르에는 이동진료선을 만들어서 이동진료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학교가 세워져서 1000여명 이상의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편력 마을에는 청소년아동복지센터가 지어져서 지역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은 준공기로 불려도 될 만큼 희망은 있으나 손에 잡히지 않고, 그 희망을 보면서 견디고 견뎌야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정권의 교체 후 곧 이뤄질 것 같던 남북의 교류는 다시 냉각되면서 미뤄져 버렸고 시간이 흘러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의 봄이 오는가 했지만 또 한 해를 미뤄야 하는 그러한 막막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국제푸른나무는 절대 멈출 수 없었고, 멈추어서도 안 되기에 장애인지원사업, 아동 의복지원, 먹거리지원, 평양척추재활병원 건축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초와 연말에는 북에서 요청한 비닐 방막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작물 수확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8년 초부터 장애인 용품들을 지원하는 사업, 패럴림픽 응원단 조직, 북한장애인 치료지원 등 많은 계획들이 있어 사무국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제 푸른나무 사무국은 삶을 바쳐서 일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면서 많은 기도와 응원,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뜨겁게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평양 장애인 척추 재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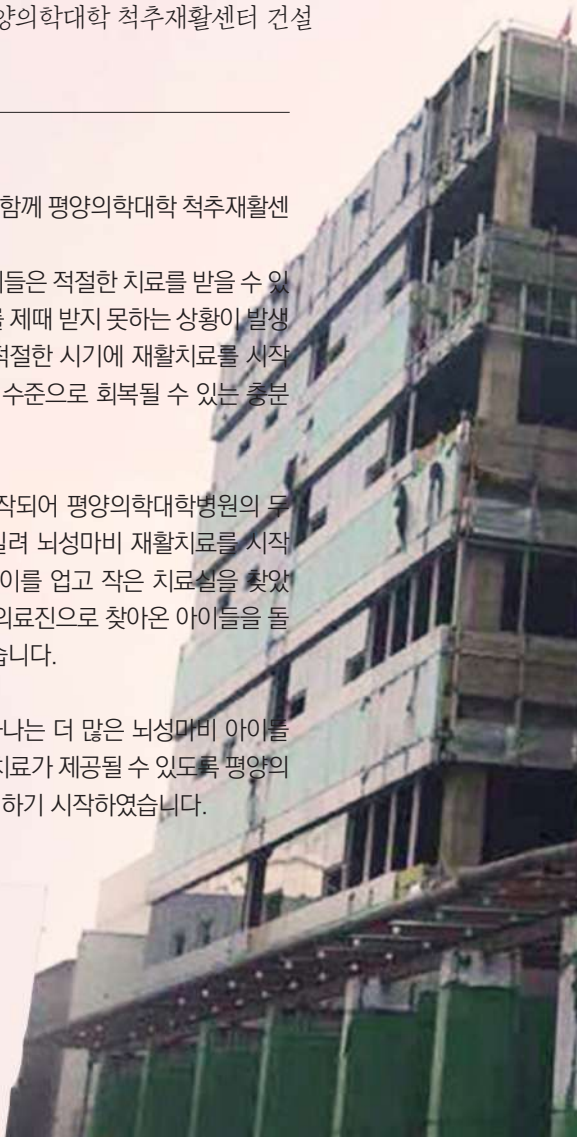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 건설

국제푸른나무는 선양하나와 함께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뇌성마비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센터의 부재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왔습니다. 뇌성마비는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할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2012년 선양하나로부터 시작되어 평양의학대학병원의 두 평 남짓한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뇌성마비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많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업고 작은 치료실을 찾았지만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의료진으로 찾아온 아이들을 돌려보내야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제푸른나무와 선양나는 더 많은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의 모습



2017년 10월 16일, 미국 재무성으로부터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 센터건축에 대한 승인(OFAC License)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계속되는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척추재활센터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내부마감공사(바닥, 천장, 벽 등)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마감공사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2018년, 척추재활센터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취지 및 목적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를
건립하여 더 많은 북한 뇌성마
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려 합니다.

상세 산출내역

2층 외래환자 물리치료실,
3층 행동발달장애 아동치료실,
4층 어린이 입원실,
5층 전문의 교육실

바닥마감, 천장마감, 벽체마감:
약 370,000,000원

계단공사, 난간, 승강기:
약 100,000,000원

문 구입 및 설치, 지하내부장식:
약 40,000,000원



네팔후원의 밤+패션스쿨

네팔의 꿈을 마음에 담아 사랑으로 패션을 꿈꾸게 하다

2017년 12월 1일, 12월의 첫날!

한강 스칼리티움 크루즈 378에서 네팔 패션스쿨 돕기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여명의 후원자님들과 내빈들이 네팔 패션스쿨의 학생들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 해주셨습니다.



함현진 미술사의 오프닝 미술쇼로 화려하게 시작된 행사는 김준 사무총장의 행사 시작 선포 및 취지 소개로 네팔 패션스쿨 돕기를 위한 후원자의 밤 행사의 본격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곽수장 이사장은 진심어린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해주셨고,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특별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후원자와 내빈들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주인공!!

네팔 패션스쿨의 사업본부장님과 1기 학생들의 인사 및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네팔 패션스쿨의 대표로 1기 수료생 두 학생이 참석하여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님들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의 꽃! 럭키드로우 시간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좋은 선물과 행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네팔 패션학교의 연고지가 없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국제푸른나무를 항상 신뢰해주시고 동참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팔 사업본부에서 보내주신 감사편지



국제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팔에 잘 도착했습니다.

며칠 후인 1월17일에 카트만두 마할락츠미

스탄에 위치한 **느헤미아 센터**에서 NGFA (Nepal GreenTree Fashion Academy) 2기 수업을 위한 개강식이 있습니다.

2기 수업은 2018년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2016년 6월에 시작하여, 2017년 5월에 마친 1기생들과는 달리, 이번에 새로 가르칠 학생들은 모두 고아원에서 추천받은 청년들입니다. 입학설명회와 면접을 통해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선발했습니다.

지난 여름 난민촌 쌀 나눔과 밥퍼 행사를 위해 네팔에 오셨던 김준 사무총장님과 박주희 실행이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 “후원의 밤”을 열어 저희들의 사업을 여러분들께 알리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숙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한 예비 모임에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신 실행이사님들과 준비위원님들도 감사했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소에서 따뜻하고 다정하게 진행되었던 행사도 참 고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1기생 비카스와 데쌍에게도 대단한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능을 주셨고, 또 마음도 주셔서 이곳 네팔에서 복음을 든 패션리더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대신 저희들의 필요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가르칠 청년들은 고아원에서 성장한 친구들입니다. 고아원의 규정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을 해야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의 교육일정상 합숙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숙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목을 적당한 숙소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원자들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되어질 후원금은 청년들이 목을 숙소를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숙소는 아니어도 최선의 숙소를 마련해서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던 그 시간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실 터이니 그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원에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14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선태 조상미 드림

제1차통일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심화과정

미래 인재 양성 사업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드는 가을의 10월, 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모인 교육생들의 마음도 뜨거운 열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심화과정은 우리 마음속의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 간다.” 라는 열정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통일과 사회복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

첫째 날, 오후 2시가 되자 국제청소년 유스호스텔 4층 하모니관에서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기본과정 1기와 2기 수료생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 고향이 다른 교육생들이 모여 2박 3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북한 현지에 맞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첫 시작을 특강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북한의 사회조직망을 이해하고, 북한주민들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재]와 남북사회복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4가지 통일사회복지 연구주제에 대해 조별로 분임토의를 하며, 하루일정을 마쳤습니다.



둘째 날. '전문성'을 내 것으로

둘째 날, 교육생들은 하루 종일 북한민과 1:1로 함께 서울 시내를 돌며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동질감과 이질감도 느껴보는 등, 서로의 거리감을 없애며 친밀감(라포)을 형성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각각 서울의 명소인 창덕궁과 비원, 서대문형무소, 길상사, 동대문DDP, 허준박물관, 성남에 있는 서울에어쇼까지 둘러보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탐방도 좋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할 때, 마음 문을 열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전문성은 외부의 지식과 내부의 마음이 만났을 때, 발현되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이 아닐까요?



셋째 날. '통일, 자각몽이 되다'

드디어 발표회 및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준 사무총장과 박주희 실행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심사를 보는 가운데, 4개의 조가 그동안 준비한 통일사회복지 연구주제와 1:1탐방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활용가능한 사례관리'를 연구한 2조가 우수조가 되었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2박3일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연구자료를 만들었기에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료식까지 모두 마치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는 '자각몽'처럼 통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2박 3일 동안 통일된 현실 속에서 살아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번 심화과정의 교육생 20명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봅니다.



을 만들어가는

일 사회복지 전문직 양성과정

일 20... 9월

국제... 센터 유스호스







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1:10)

17. 9. 16. 강화도 평화전망대 외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통일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선교국의 사역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의 시대에 그 땅에 들어가 북한 어린이들의 전인적 양육을 준비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어 내는 길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상과, 체제의 깊은 울무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일 수 있어야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유기성 담임 목사님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 통일은 그 길에서 오리라 믿습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인도적대북지원(북방선교) 정기후원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대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품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낮은 곳에 임해야 합니다. 메마른 시냇물에 울부짖는 사슴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많이 소생하려면 뿌리부터 물이 들어가야겠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북한 현지의 장애인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살피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경험과 노하우가 구축된 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붙잡아 미약하게나마 후원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하나 나그네를 품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음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탈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 회령에 일어난 큰 홍수 소식을 들은 이남에 온 아이들이 새벽마다 “내일 통일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바랑 밥 한번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통일은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엄마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의 얼굴을

어루만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북한의 2000년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인도적
대북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신데
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후원하고
계신가요?

이북의 동포들은 지금의 북한 체제보다 더
나은 제도 아래 통일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은
남반부를 무력 통일시켜 인민이 더 이상
희망 둘 곳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권이 어려운 계층을 인도적으로 생각한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세계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이 평양의 배급 계층을 유지시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지 않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희망은 인민이 가
진 전부인데 잃어버린 인민의 희망을
되찾을 힘은 오직 주님의 복음 밖에 없**

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지원이라도 주님이 매듭지실 일로 믿고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가 많
이 쌓여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북의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보여주시기
위해 팀장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
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국제푸른나무의
많은 분들의 열정이 담긴 것입니다. 지금은
사역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지라도 이 열정이
쌓여 가길 바랍니다. 최선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유기성





이은미 후원자님

국제푸른나무 정기후원자

후원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 이은미 입니다.

2011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신데,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 계기와 후원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어요.

직장에 취업하면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여러 단체를 찾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북한선교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 후원할 단체를 찾던 중에 국제푸른나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사업 내용과 비전을 보고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께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며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때론 불품없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작지만 이런 나눔을 통해 이뤄지는 일들을 보며 잊고 있던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Q ‘나눔’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부끄럽게 작은 후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최소의 금액을 책정하여 지금껏 올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갖게 된 감사함은 훨씬 더 크답니다. 삶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줄 만큼이요! 기대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려요.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투명한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비전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늘 승리하시길 기대합니다!

김도훈 후원자님

국제푸른나무 정기후원자

**Q 후원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게요!**

저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도훈이라는 청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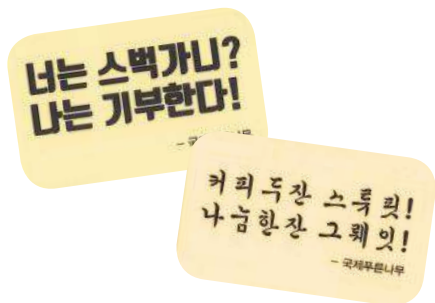
Q 2013년부터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된 계기와 후원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어요.

예전에 다녔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광고를 통해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되었고, 평소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후원자님께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이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 식량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나눔’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올 한해 한 달에 커피 한 두번 덜 마시면 어떨까요?ㅋㅋ



Q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NGO 단체를 꾸리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여러방면으로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 삶을 건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국제푸른나무 관계자 분들 모두 평안함 속에 이런 일을 잘 해내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김도훈

I'M SPONSOR
국제푸른나무

너는 스벅가니?
나는 기부한다!

- 국제푸른나무

아기야,
후원하는 거 기쁘게!



조금 더 의미있는 삶을 위해
나의 것을 즐거이 후원합니다

국제푸른나무

후원하는
우리가
후블리♥

- 국제푸른나무 -

커피 두잔 수록 핏!
나눔한잔 그웨이!

- 국제푸른나무

나는 후원자다

- 국제푸른나무

1

제2기, 3기, 심화 통일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제2기, 3기, 심화과정 총 3번의 통일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통일 후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며 통일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실천해나가는
수강생분들. 바쁜 일정에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통복사를 수료한 수강생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 나눔 대축제 부스운영

10월 28일~29일 이틀 동안 서울시청 광장과 무교로일대에서 열린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국제푸른나무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도퍼즐 맞추기, 복讎동화책방, 복讎차 시음 등의 체험을 위주로 구성된 국제푸른나무 부스에서는 가족, 어르신, 외국인 등등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400명이 넘는 분들이 체험에 참가하시며 수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3

네팔 패션스쿨 돕기를 위한 후원의 밤

12월의 첫날! 한강 스칼리티움 크루즈 378에서 네팔 패션스쿨 돕기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여명의 후원자분들과 내빈분들이 네팔 패션스쿨의 학생들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팔 패션스쿨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었고, 두 학생이 직접 참석하여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4 서울시 평화 통일 교육 공감 세미나 표창장 수여

12월 15일, 서울시 평화 통일 교육 공감 세미나에 국제푸른나무도 참여하여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통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 호건 팀장님께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실제 아카데미 수료자이신 유영희님께서 후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국제푸른나무의 '통복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5

대북 인도적지원사업 |

비닐박막지원, 아동내복지원, 경운기 지원

3월 21일 농업용 비닐장막, 경운기를 북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아이들의 겨울 내복이 드디어 북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된 아동내복은 북측 담당자를 통해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이웃들이 농사를 짓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6 조장런 보청기 전달

5월 2일, 국제푸른나무의 사역자를 통해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에 보청기 40개와
배터리 4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보청기를 통해서 북녘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네팔 쉼렌말마를 쌀나눔&밥퍼나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진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양철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쉼렌말마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 4000kg의 쌀포대 나눔 및 염소, 닭 등을 이용한 요리로 밥퍼 나눔 구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2015년 4월부터 네팔 지진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하였고, 이 때 조성된 정기 후원금으로 아동교육지원 및 결연사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호사업으로 쉼렌말마로의 구호사업 진행과 결연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업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8

마다가스카르 팡갈란 운하 의료선 제작

국제푸른나무의 사업본부인 아프리카리더십을 통하여 2016년 11월부터 지원한, 타마타브에서 남부 마나카라 680Km를 연결하는 팡갈란 (Pan-galanes) 운하 의료보건사업에 투입될 1호 의료선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제작된 의료선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9

마다가스카르 물품지원

국제푸른나무와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 사업 본부가 함께 작업하여 40피트 컨테이너 한가득 옷, 신발, 가방 등을 실어 마다가스카르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굿월스토어, 루키버드, 스토리잼에게 감사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 저금통 수거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새해를 맞아 서울 전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사랑나눔' 후원모금함 수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전국의 모금함과 해피빈 등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는 북함경북도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수해복구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참해주신 많은 후원자님의 사랑과 마음에 힘입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1

휴먼앤휴먼 업무협약식

1월 25일 수요일.

국제푸른나무 사무실에서 휴먼앤휴먼 인터네셔널과의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소외계층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해외 지부 설립을 위한 공익적 업무협력과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부

서울지역본부는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노숙자 250여명
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마련을 위해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매일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 노숙
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산지부

경산지역본부는 경산청소년
아침무료급식센터를 운영
하며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7시 30분 아침 밥을 굽는
아동, 청소년들 180여명에
게 따뜻한 아침 밥을 도시락
으로 배달해줍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후원
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illegible]

충청지부

12월 9일 저녁 카페 비비두스에서 국제푸른나무 총남자부 주관으로 ‘그대와 따뜻한 겨울을’ 하우스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타리스트 장하은양과 성악가 황은영씨의 재능기부와 비비두스 카페의 후원으로 많은 분들께 따뜻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국제푸른나무의 지원성금은 예산사랑의 다리 장학회에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잘 전달되었습니다.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 성심성의껏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해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1 이연희 홍보대사 위촉식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에서 배우 이연희 홍보대사 위촉식을 2017년 3월 9일 저녁 7시에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가졌습니다. 국제푸른나무 홍보대사 송솔나무의 축하와 박수광 이사장, 엄영흠 국제코디네이터의 축사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2 아프리카 돕기 후원물품 지원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루키버드 코리아, 스토리잼, 굿월스토어에서 가방과 신발 그리고 옷들을 지원해주셨습니다. 40톤 컨테이너 1개와 20톤 컨테이너 2개 분량이 마다가스카르의 신이 없고 옷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3 JDM과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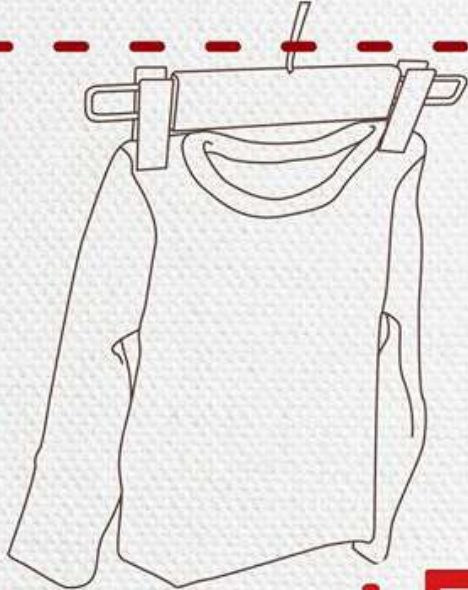
청년캠퍼스 사역을 하는 JDM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체결식에는 손귀연 JDM 국제총무와 이효근 아프리카리더십 대표, 김영광 간사와 김명천 알곡교회 담임목사, 김진성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였습니다.



4 홍보대사 이연희 TV CF 제작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의 홍보대사인 배우 이연희씨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TV 홍보 CF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CF는 손영선 감독의 지휘하에 따뜻하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자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할
북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푸른나무는 매년
〈겨울내복〉선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이 5년차로 지금까지 보낸 내복이
총 11,620여벌입니다.

+5°C 사랑

내복보내기 캠페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내복과 함께
잘 포장하여 전하겠습니다.



털 옷 안에 국제푸른나무에서 보낸 내복을 입은 사리원애육원 아동들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센터 건설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할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인 뇌성마비!
북녘의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척추재활센터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내부마감공사(바닥, 천장,
벽 등)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마감공사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국제푸른나무 후원관리 담당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협기술진흥관 3층 303호
04422

후원신청서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연말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 신청시 기입
휴대폰번호	<input type="checkbox"/> 소식수신여부 동의
E-mail	<input type="checkbox"/> 소식수신여부 동의
주소	

정기후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CMS자동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약정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만원)		
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은행(카드사)		계좌번호 (카드번호)	
예금주(명의자)		예금주생년월일 (카드유효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국제푸른나무에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후원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국제푸른나무로 지정 출금일에 출금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출금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제푸른나무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금융기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며 상기 후원금을 CMS자동이체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 및 기업 후원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나눔참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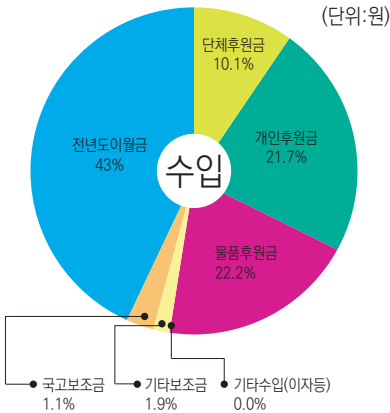
함께하는 나눔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홈페이지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후원참여>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 및 단체후원, 물품후원, 자원봉사참여 중 후원종류를 선택하여 후원신청을 해주세요.
전화	국제푸른나무 사무실 02.3482.2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입금	아래의 국제푸른나무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국민은행. 760737-04-007453. (기부자 확인 및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국제푸른나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소식지	소식지의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제푸른나무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전화 한 건당 5,000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60 700 1333
종이저금통	종이저금통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화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개당 1000원)
해피빈	국제푸른나무 해피빈 모금함 페이지 http://happylog.naver.com/greentree.do 접속하셔서 회원님의 소중한 쿵을 기부해주세요. 쿵은 1개당 100원입니다. 100원이라는 작은 돈을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해주실 수록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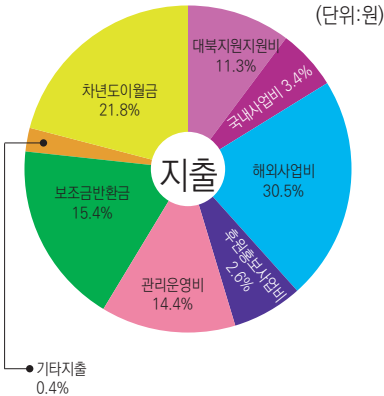
수입

과목	금액	비율
단체후원금	122,601,766	10.1%
개인후원금	265,110,956	21.7%
물품후원금	270,177,000	22.2%
국고보조금	13,238,633	1.1%
기타보조금	22,922,579	1.9%
기타수입(이자 등)	508,140	0.0%
전년도이월금	524,827,500	43.0%
수입합계	1,219,386,574	100%



지출

과목	금액	비율
대복지원비	138,176,166	11.3%
국내사업비	41,234,262	3.4%
해외사업비	372,405,694	30.5%
후원홍보사업비	32,257,276	2.6%
관리운영비	175,980,154	14.4%
보조금반환금	188,229,518	15.4%
기타지출	5,046,007	0.4%
차년도이월금	266,057,497	21.8%
지출합계	1,219,386,574	100%



개인후원자현황

가병관 강기석 강명기 강명숙 강명진 강명희 강미아 강복원 강석순 강성호 강솔아 강수정 강승범 강양원 강영은 강유규 강유진 강지은 강지혜 강진주 강초록 강형덕 강희선 계나영 고동주 고성근 고아라 고영진 고정하 고현정 고희영 공영란 광수진 광재은 광형순 구본목 구용걸 구을랑 국필원 국혜인 권경운 권미남 권보민 권석경 권세정 권영희 권에는 권옥순 권용영 권옥일 권은혜 권주희 권지는 권지현 금장숙 기범석 김가은 김강은 김경숙 김경숙 김경애 김경호 김경희 김귀연 김규영 김규용 김기석 김기영 김기는 김기홍 김길선 김난주 김남정 김남주 김누리 김다솜 김다운 김대연 김덕식 김덕용 김도형카 김도훈 김동건 김동석 김동진 김래미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 김민진 김민현 김미희 김민구 김민석 김민성 김민정 김민혁 김민을 김병하 김병현 김보경 김보람 김보성 김보아 김부진 김상우 김상은 김셋별 김석훈 김선래 김선아 김선애 김선태 조상미 김선화 김설희 김성라 김성민 김성찬 김성현 김성훈 김세정 김세환 김세희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소희 김수경 김수래 김수봉 김수아 김수영 김수인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순자 김신규 김신혜 김아름 김아영 김안나 김안나 김양미 김어진 김여일 김연서 김연섭 김연숙 김연아 김 영 김영권 김영민 김영자 김영주 김영호 김예성 김예인 김요셉 김요한 김용은 김용중 김유미



국제푸른나무는 세계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Green Tree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relief NGO that helps the
world's disabled people and children.

www.greentreekorea.org